

김오진 1차관, 예상 어려운 기상이변에도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당부

- 28일 오전 충남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대응체계 점검 -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8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.
-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청양~예산 구간 공사현장은 최근 충청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사고 직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- 김 차관은 “먼저,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”면서, “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특히, 공사현장의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모든 건설 주체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.
- 또한, 김 차관은 비탈면 유실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, “공사현장 및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 조속한 복구를 진행할 것”을 주문하는 한편,
- “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탈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고, 앞으로 자연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도로건설 안전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2023. 7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